앞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정체성 형성과 신학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정신이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삶이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며 사는 삶을 뜻한다. 이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면 섬김과 나눔이다. 사람을 섬긴다 함은 그들이 하느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나눈다 함은 내게 있는 재능과 재물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과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요구된다.

제자도(Discipleship)

제자도(道)—제자의 길—는 예수를 선생으로 고백함으로 시작한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신학적 입장을 표명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공식적 호칭은 선생(4:38; 5:35; 9:17, 38; 10:17, 20, 35; 12:14, 19, 32; 13:1; 14:14) 또는 랍비(9:5; 10:51; 11:21; 14:45)다. "주님"(κύριε)이란 호칭은 오직 한 번 등장하는데(7:28), 마태복음에 34 번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차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만 예수를 랍비/선생으로 부를 뿐(마 26:25, 49)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하나 같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른다(마 26:22). 혹자는 소위 '메시아비밀'의 가설을 들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이유를 변론하는데, 이는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눈으로 읽기 때문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는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그 안에서 종이 할 일이란 시킨 일, 획일적인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삶이나 발전적인 생각이 결여된다. 그러나 예수를 선생(先生)이라고 부를 때에는, 선생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다 나은 생각, 진일보한 삶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며(15:15),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14:12)고 말한 것은 예수를 선생으로 본 마가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기에 가능하다(요 13:13-14). 우리가 하는 말로 신학 다시하기다.

성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정체성)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삶의 방식)를 가르친다고 이해할 때, 예수의 삶을 본받는다 함은 예수를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신학)이 곧 나의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다. 지배자들이 본대로 예수가 사회 전복자라면 그는 위험인물로 제거 대상이다(Crossan).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세상 사람들이 본대로 예수가 사회의 하층계급과 어울려 다녔다면, 그는 술주정꾼이요 죄인들과 한 패다(마 11:19; 눅 7:34). 그들은 예수를 멸시했다. 현대인들의 눈에 그가 옛 성인 중의 하나라면, 예수는 그저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보이고 가르쳤다면, 그는 내게 선생이요 그런 의미에서 주(Lord, Master)가 된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삶, 곧 섬김과 나눔이다.

누가 큰 자인가

예수의 두 번째 가르침 역시 도상에서(on the way) 이루어진다(9:34). 여기서 길이란 문자적으로 여행의 행로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도(道)를 암시한다. 제자의 길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도 제자들의 몰이해로 이어지는데, 예수의 길과는 상관 없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길 위에서 서로 논쟁한다. 다른 도(道), 가치관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9:35). 제자의 길에 관한 두 번째 토픽이다. 첫 번째 가르침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8:34)는 말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가정법 중 가장 많이 쓰인 이 용법은 논쟁을 전제로 한 가정문이다. 만일 누군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혹은 누군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종속절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를 묻는다.

여기 나오는 첫째(first)와 꼴찌(last)라는 표현은 이 장에서 다룰 문단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여 문학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룬다(9:35; 10:31).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지배체제 하에서 저항을 의미한다면, 누가 크냐는 논쟁은 어떤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실제 생활하는 지를 묻고 있다. 쉬운 말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구 지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가? 재물, 지위,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면 권력자가 큰 자다. 반면 여자와 어린 아이는 그 사회적 구조의 가장 아래 위치한 존재로 힘이 없기 때문에 약탈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예수는 이런 지배체제 속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어린 아이를 통해 일종의 시청각 교육(object lesson)을 선보인다.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처럼 여기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잣대, 가치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9:40).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위하는 것이다. 반대해야 할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을 지지하는 꼴이 된다. 침묵하는 정의란 맥없는 일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행동하는 양심은 어린 아이를 (소위 세상의 눈에서 볼 때) 큰 자처럼 여기는 것이다.

본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실려 있다. 손과 발, 눈을 제거해서라도 생명에 드는 것이 낫다는 구절이다(9:43-47). 개역한글에는 영생으로 번역되었지만 마가복음에 영생이란 말은 한 번 나온다(10:17). 그 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물음 속에 등장한다. 이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와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원인을 제거함이 옳지 않겠냐는 반문이다. 손(43 절), 발(45 절), 눈(47 절)에 관한 가르침은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할 상황을 전제한 후의 그림이다(9:42). 그런데 그런 상황과 체제 속에서는 지체의 일부를 제거해도 변화가 불가능하다. 도박꾼이 손목을 잘라도 발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생명에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야 함을 말한다.

마가복음 10 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와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논쟁이다. 이 문제는 당시 바리새파의 쌍벽을 이루는 힐렐(Hillel)과 삼마이(Shammai) 사이에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신 24:1-4 에서 삼마이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마 19:3, 9 참조), 힐렐은 어떤 이유든 맘에 들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랍비 아키바는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 있는 여인을 찾은 것만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아내를 내칠 근거를 찾고 그것을 기초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데 있다. 예수는 그 질문에 직접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된 문제의 핵심을 다룬다. 창세기를 근거로 결혼제도가 본래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기초함을 상기시킨다(창 1:27; 2:24).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며 그것은 결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아이들이 생긴다.

결혼제도와 관련한 예수의 말 중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10:7)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로 이해해야 한다. 남자(이쉬, אִישׁ)가 그 부모를 떠나서(창 2:24) 여자와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 곧 남자가 남존여비의 사회 제도를 떠나, 남녀가 평등한 그런 가족 관계로 새롭게

태어남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가족은 사회제도의 축소판이 아니고, 그 근간이다. 사회가 가정의 연장선이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섬기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제도다.

어린 아이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상처 받기 쉬운 존재다. 어린 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순진하고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실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의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여인과 아이를 배척함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깨는 행위다.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 어린 아이와 노약자, 여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심성과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제자의 길은 기존의 지배체제의 가치관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살지 않고 평등과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요약된다.

재물과 하느님 나라

역시 예수가 길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묻는다(10:17).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는 '영생을 얻다'로 번역하지만,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 "기업으로 받다"(inherit, κληρονομέω)와 같은 말이다(마 5:5). 질문한 사람은 마치 영생이 유산 상속 받듯 특권층 가운데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 체제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미처 손에 넣지 못한 또 다른 상속물, 영생을 바라는 것으로 가진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다.

먼저 영생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마가복음에는 영생이란 말이 딱 한 번 여기에 나온다. 개역한글은 마가복음 9 장 43 절과 45 절을 '영생'으로 번역하지만, 실제 본문은 '생명'(ζωή)이고 이는 47 절의 '하느님 나라'(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와 문학적 구성상 똑같은 의미다. 현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등장한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을 비교한 말이다. 10 장 17 절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는 그에 대해 '하느님 나라'로 정정해 말한다(10:23).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10:23). 이 말이 재물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재물에 눈이 먼 혹은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꾸짖는 말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 하에서 종 노릇하며 헤어나지 못함을 경계한 말이다.

부자에게 약점은 역설적으로 그가 부유하다는 것이다. 가진 것의 상대 개념은 갖기 못한 것이라기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다. 부의 축적에 끝이 없기 때문에 가졌다는 강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등장한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 제도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데 그 가치관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는 끊임없는 구함이다. 목마름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함이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자본주의 제도와 가치관의 해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가 한 말,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의 요지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부와 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다. 병자에게 준 극약처방이다. 재물을 가진 자에게 퍼 붇는 저주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10:21) 한 말이다.

예수의 비유 속에 낙타와 문은 불가능성을 말하려는 의도인데,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뜻을 흐릴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에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겨우 들어갈 정도라고 중세 이후 설교자들은 가르쳤다. 이것을 근거로 자기를

낮춤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석함은 불가능을 말하려는 비유에서 애써 버려야 할 것을 지키는 구실을 찾는 것과 같다. 그 재물—지배체제와 그 가치관에서 성공—을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 마치 세상의 복을 받으려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처음부터 잘못된 가치관 설정이고, 틀린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하느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과 재물을 동일시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재물로 표현되는 세상의 가치관,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와 하느님 나라 복음을 혼동하는 슬픈 이야기다. 예수가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들어 말한 대목과 맞물려 있다(3:22-30).

섬김과 나눔

섬김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 정체성을 상실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섬김은 내가 나를 아끼듯 이웃도 아끼는 행위다. 하느님을 경외함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많은 지체들이 서로 아껴야 함을 말했다. 손과 발이 서로 다투는 것이 몸에 유익하지 않고, 눈과 코의 맡은 바 임무가 다르듯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서로 서로를 인정하되, 특히 약한 지체를 더욱 돌보라는 권고다(고전 12:31).

나눔은 동냥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일시적인 자선, 구제를 넘어 항상 돌보는 행위는 이웃을 가족처럼 여길 때 가능하다. 비록 몸은 지배체제(십자가) 하에 있지만, 마음은 그 정신—가치관, 이데올로기—을 따르자 않는다.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눈에 재물이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면, 이는 우리가 지배체제의 가치관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재물을 나눈다 함은 하느님 나라 생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다. 재물이 힘과 권력과 함께 지배체제에서의 성공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talent)의 일부로 여긴다. 달란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는 세상을 유익하게 할 하느님의 자원이다. 자기 자랑, 욕심을 위해 사용 않고, 청지기로서의 생활—그것이 섬김과 나눔의 삶이다.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 가진 것이 힘을 상징하는 체제 속에서는 나눔은 자신의 가진 것의 손실을 뜻한다. 기존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과 상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진 채로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기업으로 받고자 한다면”—이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하느님과 맘몬을 동일시하는 행위다. 재물(맘몬)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들 수 없다(마 6:24; 눅 16:13). 현 지배체제에서 가장 상처 받기 쉬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듯이 하느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다. 손, 발, 눈을 자를 수 없듯이, 물질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 매이지 말라는 뼈아픈 가르침이다.

생각해 보기

1.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나는 가장 작은 자는? 큰 자는?

2. 내 삶 속에서 재물이 갖는 의미는?